

원화 강제·치솟는 유가 파업·사업장 점거까지

“요즘 기업하기 너무 힘드네”

외국인 투자자 투자기준 “기업가치보단 투명성”

“원화 강제와 치솟는 유가에도 노조 파업과 사업장 불법점거까지...”

국내 산업계가 사면초가의 형국 속에서 연일 이어지는 악재로 신음하면서 실적악화와 경쟁력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휩싸였다.

국내 기업들은 올 들어 원화강제로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입은 데다 최근에는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자동차업계 노조의 파업확산에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점거 등 노조의 하루(夏鬮)가 강경극면으로 치달으면서 피해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입원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최근 배럴당 70달러선을 넘어선 데 이어 이를 연속 사상 최고치

하반기 실적 악화·글로벌 경쟁력 하락...재계 위기감 팽배

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연초부터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지만 고유가로 인한 전체적인 비용상승에 대응할 별다른 대책이 없어 높아진 원가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특히 수년전부터 수익성 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화석업계나 연료비 비중이 큰 항공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은 유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업계도 작·간접적으로 에너지가격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원가구조를 갖고 있어 늘어난 원가부담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업계는 연초부터 원·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수출경쟁력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유가의 상승행진이 지속될 경우 늘어난 원가부담으로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에 이어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의 노조들도 올해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속속 파업에 동참하면서 생산라인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점차 파업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사실상 전면파업을 시작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현대차의 직접적인 손실규모는 7천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현대차 노조 뿐 아니라 쌍용차와 GM대우의 노조도 지난 14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으며, 18일부터는 기아차 노조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노조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은 자동차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포스코는 지난 13일부터 포항건설 노조원들에게 포항 분사를 점령당한 뒤 임무를 보지 못하고 있어 하루 100여억원의 피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파이넥스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산업계는 사방이 악재로 둘러싸여 있어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시계 (제로)인 상황’이라면서 “언제쯤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외국인투자자들은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보다는 정보비대칭이 낮은 기업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원영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회계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세무와 회계저널’ 6월호에 실린 ‘외국인지분율과 이익에 측정확성 및 기업가치간의 동시적 결합관계’ 논문에서 지난 1999~2003년 774개 국내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분석결과 기업가치는 외국인지분율과 비유리적인 회회계수를 보인 반면 이익에측요소 및 예측이익표준편차는 외국인지분율과 유의한 음(-)의 회회계수를 보였다”면서 “이는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이 아닌 정보비대칭이 낮은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선호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이어 “외국인지분율 및 이익에측정확성은 다시 기업가치와 양(+)의 회회계수를 보며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기업의 가치를 재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높은 수준의 공시정책을 유도, 회계정보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효과적인 외부감사주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자가 정보 비대칭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 적극적인 기업감사 활동 등을 통해 다시 기업가치를 재고한다는 것이다.

안 연구원은 “또 외국인지분율은 총자산수익률과 현금비율, 총자산과 유의한 양(+)의 회회계수를, 부채비율과는 음(-)의 회회계수를 나타냈다”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기업규모가 크고 수익성, 유동성, 재무건전성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못믿을 신규상장 코스닥株

지나해 68개사중 39곳 상장전 실적 과대포장

코스닥 신규종목 투자자 상당수 기 준실적에 크게 의존하지 말라는 증시전문가들의 조언을 뒷받침하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이는 상장을 앞둔 개별 기업들이 공모가 산정 등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상장기준 시점의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으로 투자에 앞서 꼼꼼한 실적추이 분석과 엄밀한 실적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증권신문거래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상장한 코스닥기업 68개사 가운데 2005년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상장기준인 2004년 실적보다 향상된 기업은 전체의 42.6%인 29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39개 기업은 영업이익이 하락했으며 이 가운데 적자전환하거나 3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이 25개사에 달했다. 19개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으며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기업도 4개사나 됐다.

순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총 38개사였

으며 이 가운데 적자전환·지속 또는 30% 이상의 감소를 기록한 기업도 22개사나 됐다.

매출 및 영업이익이 모두 30% 이상 하락한 기업들은 인프라벨리, 루미마이크로, 아이디에스, 산양전기 등 4개사 아이들은 14일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주가가 각각 36.2%, 42.7%, 57.6%, 58.9% 하락한 상태다.

한화증권 이영곤 책임연구원은 “올해 상장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1·4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실적의 상향 추이 오히려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단적으로 실적을 끌어올린 것이 이후 실적악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공모할 당시의 실적이나 장밋빛 전망만 믿고 투자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공모 이전의 실적추이의 연속성과 사업전망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마철 끈적거리는 가라!

용품에 고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계속된 장마로 인해 실내 습도가 올라감에 따라 제습용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서울 이마트 은평점에서 한 고객이 제습

/연합뉴스

CD금리 꿈틀... ‘이자 폭탄’ 오나

0.04%P 금등...대출금리 도미노 인상 가능성

양도성에금증서(CD) 금리가 꿈틀거리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월에는 금융당국의 주택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 7월에는 CD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발 대출금리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6월의 가산금리 인상은 신규대출자에게만 해당하지만 CD금리는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1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금리인 CD금리는 0.04%포인트 급등했다.

CD금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 해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10·11·12·14일 각각 0.01%포인트 올랐

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10일 연 5.41~6.61%에서 18일 연 5.44~6.64%로 0.03%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CD금리 인상분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CD금리 상승은 6월의 금융감독당국 발 가산금리 인상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최근 CD금리 상승세를 ‘이제 시동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데 있다. 펀더멘털에서부터 수급요인까지 인상요인만 만발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CD금리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정책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성에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콜금리 인상 필요성을 좀 더 강하고 직

접적인 어조로 시장에 전달하고 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근 CD금리 상승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는 성격이라면 지난 주 상승분인 0.04%포인트는 콜금리 추가인상분인 0.25%포인트의 4분의1도 안된다. 결국 CD금리의 추가 상승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때마침 이번 달부터 CD 등록제 및 MMF(머니마켓펀드) 익일입금이 시행되면서 수급상 CD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은행들은 최근 들어 가계대출의 신용위험을 높게 판단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실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은행들은 최근 가계부분의 신용위험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최고위 경영진들 스톡옵션 대박 또 터뜨릴까

‘크레듀’ 코스닥 진입 눈앞...삼성생명 상장 현실로

고객의 연봉외에도 주식과 스톡 옵션을 통한 자산만 최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삼성그룹의 최고위 경영진들이 또다시 ‘대박’을 터뜨릴 것으로 보인다.

크레듀가 그룹사중 첫 코스닥상장을 앞둔 데다 무엇보다 삼성생명의 상장도 현실로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인 온라인교육업체 크레듀는 지난 13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심사를 통과했다.

크레듀의 최대주주는 과거 이재웅 삼성전자 사무의 e-삼성 지분을 떠안은 제일기획(36.24%)이며 그의 법인주주가 다수지만 이학수 그룹 전략기획실장과 김인주 사장이 각각 4만주와 2만주를, 김영순 크레듀 대표도 7만8천500주를 들고 있다.

공모예정가가 1만9천원~2만1천500원선으로, 현재 2만4천~2만5천원선인 장외시장이보다는 싸 보이지만 현재 자본금 21억여원이 이 회사가 65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낸 점, 상장 시초가는 공모가의 최고 2배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증권가의 관측이다.

크레듀는 ‘고작’ 수억원대의 ‘소박’이지만 삼성생명은 한국의 ‘부(富)의 지도’를 바꾼다는 ‘초대박’이다.

이 회사는 이경희 삼성 회장이 4.54%,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문화재단이 19.34%, 4.68%씩을 갖고 있으나 이학수 실장과 이홍순 삼성정밀화학 사장 명의 지분도 9만3천600주씩 있다.

삼성생명의 상장후 주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축이 지난 1999년 주창한 대로 주당 70만원이 된다면 두 사람의 자본가치는 각각 655억원에 이른다.

이학수 실장은 삼성생명과 크레듀 외에도 삼성전자 1만3천884주(14일 종가 기준 81억원 상당)와 지난 2000년, 2001년에 받은 스톡옵션 잔량 각 9만4천774주(14일 종가 기준 평가차익 662억원 상당)를 갖고 있다.

여기에 이미 장외에서 상장주식처럼 거래되는 삼성SDS(251만7480주), 삼성네트웍스(61만7천937주), 서울통신기술(99만9천990주)에도 이 실장 명의 지분이 있어 그의 전체 자본가치는 1천억원선을 훨씬 웃돌게 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텔서비스(주)	히어로텔레콤 광고고객센터 인바운드상담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19	02-2163-4125
(주)그린텔	KTF목포웹서비스센터 정규직 객장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7/20	042-223-4900
(주)서민인드스트리	[신원파크호텔]호텔 휘트니스 클럽 수영강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20	062-228-8000
(주)한국아쿠르트 호남지점	영업관리직원	초대졸/경력무관	2,600~2,800	07/21	02-3449-6323
(주)신유	기계/제어/전기관련 일보국의 수출입무역	초대졸/경력1년	2,200~2,400	07/21	010-9587-9760
이지디탈(주)	지재관리(삼성 사급 수령)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3	062-955-0801
(주)노도디자인	정규직 웹디자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5	062-462-3433
대성화학	고무제조업체 생산직 및 사무실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5	062-953-7088
명기인	임원비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8	062-360-3505
(주)한성일렉트로	공장자동화(PLC/HMI/서보)경력 및 초보사원	고졸/경력1년	2,200~2,400	07/31	062-972-9029
신일가스(주)	경리, 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31	062-951-001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유진기업, 서울증권 최대주주 부상

유진기업은 서울증권의 최대 주주 강찬수 회장의 보유주식 1천282만2천527주(4.87%)를 205억원에 사들여 금융업 진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18일 “이번 증권사 인수 추진은 그룹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유진그룹의 금융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기존 건설사업과 함께 향후 그룹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기업은 금강위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41만주를 합쳐 총 1천423만2천527주(5.4%)를 보유해 서울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유진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이 떨어지는대로 곧바로 경영권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분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최대 주주가 된 후에도 기존 경영진 및 인력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증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